

<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 『현대미술 강좌』>

13. 대지미술(Land Art 또는 Earth Art)

시기: 1960년대 후반-70년대
 주요작가: 앤디 골즈워디(Andy Goldsworthy 1956-)
 안토니 고펠리(Antony Gormley 1950-)
 리처드 롱(Richard Long 1945-) 등
 <미국작가>
 로버트 스미드슨(Robert Smithson 1938-73)
 마이클 하이저(Michael Heizer 1944-)
 월터 드 마리아(Walter de Maria 1935-)
 낸시 홀트(Nancy Holt 1938-) 등

1. 시대적 배경

- 가.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것에 반항하는 60년대 시대 정신의 반영
 - ▪ '물질로서의 미술, 상업적인 미술에 대한 저항감과 받침대 위에 올려지는 전통적인 조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, 이를 통한 조각 개념의 확장을 위한 시도로써 등장
 - 미술관 갤러리와 같은 미술 전용 공간으로부터의 탈피 시도
- 나. '경험'이라는 요소를 통해 '시간성을 조각에 도입함으로써 조각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 미니멀리즘(Minimalism)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가장 번성 영국, 독일 등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전개. 유럽에서는 일상 재료를 미술에 도입하는 아르테 포베라(Arte Povera) 운동의 영향도 작용. 아시아로도 퍼져 국제적인 미술운동으로 자리매김.
- 다.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미술품 개념에 대한 도전으로써 작품 제작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아트(Process Art) 또는 결과물보다는 개념 자체를 중시하는 개념미술(Conceptual Art)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.

2. 대지미술의 의미

- 영어로 Land Art 또는 Earthworks, Earth Art라고 불림.
- 1968년 로버트 스미드슨이 기획한 그룹전 제목 'Earthworks'에서 유래.
- 1969년 윌로바이 샤프(Willoughby Sharp 1936-)라는 유명한 미국인 큐레이터가 대지미술 작가들을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'Earth Art'라는 제목을 부침으로써 일반화.
- 작품의 소재나 경향·방법 등이 미술가마다 다양. 특히 미국 작가들의 작품은 규모면에서 웅장한 경향이 강한 반면 유럽 작가들의 경우 사색적이고 소박한 경향을 띠. 그러나 사막·산악·해변·설원(雪原)과 돌, 나뭇잎 등 자연을 미술품의 재료 또는 배경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음. 또한 공통적으로 미술의 일시적 성격을 강조하고 미술 재료 또는 재질로서의 자연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함.

-알리는 글-

마지막 강의날인 6월 23일에 오전 10시부터 14회와 15회 강의를 연달아 진행됩니다.